

## 공단, 정보화역량 강화

- 철도건설 사업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예산절감에 기여 -

공단은 정보화전략계획(ISP : Intelligence Strategy Plan)을 수립·추진하여 정보화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정보 인프라 진단및개선 △스마트워크(Smart-Work) 미래모델 발굴 △정보화조직 역할및역량 강화 △업무및응용프로세스 진단 등 4개의 트렌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중장기 정보화전략수립 컨설팅용역을 수행하고, 지난 6월 29일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공단은 이번 용역을 통해 정보화 성과관리방안, 정보보안개선,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등 8개분야 전략과제별 16개 이행과제, 31개 세부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사업관리 시스템 및 현장경영에 모바일 등 스마트워크 도입,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구축 및 망 분리, 노후시스템 교체와 아울러 DR백업센터 구축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모바일을 사업관리시스템 개선 및 현장경영체제에 접목함으로써, 철도건설 사업관리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이번 중장기 ISP 용역 수행을 통해도출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즉시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올해부터 단계별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의지를 밝혔다. (기획혁신본부 이태규 기자)



## 철도건설현장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

- 수도권본부, 정기안전교육 및 결의대회 개최 -

수도권본부(본부장 최성권)는 지난 3일과 4일 이틀간 현장 안전총괄책임자 및 공단 직감독자 등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시행한 「정기안전교육 및 안전결의대회」행사는 공단 6대 경영목표중 하나인 "무재해 안전시공" 달성을 다짐하는 자리로서 안전결의문 낭독, 안전사고 재발방지 특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외부강사 특강, 안전시공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무재해 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에는 안전분야 전문가(한국시설안전공단)를 초빙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특강을 시행하여 교육과정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기하였으며, 지하수 유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부간선도로 하부통과 터널구간을 안전하게 시공(분당선 1공구)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였다

수도권본부는 앞으로 내실 있는 「정기안전교육」을 시행, '무재해 안전시공'을 통해 올 한해 무재해 본부로 나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권본부 임병일 기자)



## 공단 과잉설계 예방으로 건설단가 낮춘다

- 설계단계부터 과잉시설 없는 적정설계 유도 -

공단은 작년 8월 김광재 이사장 취임이후 '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의 슬로건 아래 현재 건설 중이거나 설계중인 철도건설사업의 과잉시설을 개선하는데 전사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공단은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공항철도 연계시설 확충사업 등에서 과잉시설을 개선한데 이어, 하반기에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과잉시설이 없는 적정설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계업체 정거장 배선설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과잉시설 개선사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교육에서 운영과 경제성을 고려한 건설계획, 철도시설규모 조정 및 과잉설계 개선사례 등 실무위주로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정거장 선로배선결정 기술력 향상방안에 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덕원 수송계획처장은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자 편리성을 고려한 철도건설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철도를 건설함은 물론 과잉설계를 예방하여 철도건설단가를 낮추면 궁극적으로는 철도투자가 확대되어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건설 용지보상시 잔여지 매수기준 등 개선

- 철도공단, 용지보상관련 민원감소 대책 추진 -

공단은 철도건설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잔여지 매수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체들과 청렴계약을 체결하는 등 보상업무를 개선하여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토지보상법 등에는 잔여지 매수기준을 "중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최소면적 또는 그 모양이 현저히 좁고 길거나 부정형(不整形)토지"라고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용지보상민원 중 잔여지 매수요구 민원이 상당수 차지하는 등 토지소유자와의 분쟁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잔여지 지목별로 매수 최소면적을 대지는 60㎡, 농경지 등은 330㎡로 하되, 건축/영농이 불가한 부정형 토지는 면적에 상관없이 폭 5m이하인 경우 매수토목 명확히 제시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체와 청렴계약을 맺어 보상용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업체가 금품·향응 제공 등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2년간 공단의 사업에 참여를 배제시키고, 평가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용지보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장순상 용지처장은 "이번 용지 보상업무 개선으로 잔여지 매수에 관한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어 보상업무의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주~강릉 우선 착공구간 간담회 개최

## '강원통' 조성으로 협력사와 소통채널 구축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6월 28일 원주~강릉 우선 착공구간(6~10공구)의 본사 PM과 협력업체 현장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원주~강릉간 철도건설 사업이 평창올림픽 성공유지를 위한 핵심지원 사업임을 강조하며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등 진지한 대화속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규 본부장은 이날 협력업체 공사관계자들에게 적극적인 공사추진과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유대를 강화하고 철도편의 홍보 등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협력사 본사 차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공단에서 용지매수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공사추진 의지를 담았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원주~강릉 사업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논의되면서 조기착공에 대한 상호간의 추진의지를 확인한 자리가 되었으며, '17년도말 개통을 위한 협력업체와의 동반자 및 파트너십 관계로 개통목표 달성을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본부 김병웅 기자)



## 영남본부 『역할 바꾸기』 행사 개최

내가 본부장이라면 직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해 줄 것인가?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7월 KR열린마당 행사에서 직원간 의사소통 및 가족적인 업무 분위기 등 조직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역할 바꾸기 행사를 통해 본부장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순일 부장 외 9명이 발표하였으며, "내가 만일 사장이 라면 나를 고용하겠습니까?", 목표수치에 중독되자,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면 업무가 쉬워진다, 하절기 Cool-biz 제도 도입,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며 주체성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자 등 의견과 전직원 승용차 '안타기 날', 체력단련실 샤워부스 등 요구사항도 있었다.

이태균 본부장은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해 출근차량 및 공용차량 활용방안, 샤워부스 설치 등 발표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고 우수발표자 1명을 선정하였다. (영남본부 최미자 기자)

## 끈질긴 노력으로 대규모 불법건축물 자진철거 완료

- 행정대집행 매몰비용 방지 및 신규 수익창출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 재산관리운영부는 최근 대규모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을 통하지 않고 무단점유자를 설득하여 마침내 자진철거를 완료하였다.

그 동안 무단점유자는 40여 년간 철도부지(6필지, 4,450㎡)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해 왔으나 2009년 1월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공장 건축물 4동(연면적 1,102㎡/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을 철거하지 않고 불법 전대 등 악성민원을 유발시켜 왔다.

이에 따라 담당직원들은 '10. 11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무단점유자의 소유 재산이 없어 행정대집행 및 철거비용 등 약 6800만원의 매몰비용 발생이 예상되어 업무추진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담당직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11. 1월부터 무단점유자에 대한 수심 차려 끈질긴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마침내 '12. 5월 자진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유휴부지 4,450㎡를 경쟁입찰을 통해 연 1900만원(낙찰율 204%)의 신규수익을 창출하게 되었다.

이번의 성과는 지난해 3월경 인근 지역의 장기 불법건축물 10동(연면적 597㎡)을 자진 철거시킨 이후의 또 다른 성과로서, 무단점유자와의 감정적 대립 없이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 유도를 통해 대집행 시 발생할 매몰비용의 절감과 함께 지속적인 수익창출이라는 이중효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강원본부는 관내 무단 점유자들에게 대한 지속적인 계고와 설득으로 무단점유 해소와 수익창출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본부 오창환 기자)



게시판

## 주요뉴스 (6. 28 ~ 7. 6)

- KTX의 불편한 진실(한국경제 6. 28)
- 영동선 동백산역~도계역 철도이설공사 개통(강원도민 6. 28)
- 영동선 나선형 지하철도 개통식(강원일보 6. 28)
- 철도시설공단, 역사 지붕 등 태양광 발전 사업자 공모(충청투데이 6. 28)
- 수인선 복선전철 30일 개통(국민일보, 한국경제, 경기일보 6. 28)
- 수인선 17년 만에 속도~오이도 운행(인천일보 6. 28)
-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통리역(강원도민 6. 28)
- 수인선 다시 달린다, 속도~오이도 30일 개통(한국일보 6. 28)
- 건설노조 덤프트럭·굴착기 2만대, 파업 시작(조선일보 6. 28)
- 수인선 전철 속도~오이도 내일 개통 (서울신문, 경인일보 6. 29)
- 수인선 '달월역' 조기 건설 (경기일보 6. 29)
- 경기도 '신철도시대' 시동 걸다 (경인일보 6. 29)
- '속도~오이도 22분' 소래포구, 한잔의 낭만과 가까워진다 (경인일보 6. 29)
- 철도시설공단, 수자원공사·철도공사 감사 협의 (파이낸셜 6. 29)
- 천안~청주공항 전철 기존 노선 복선화 2019년 개통기로 (중앙일보, 조선일보, 세계일보 6. 29)
- 호남고속철 정읍역사 공사 재개 (서울신문, 전북일보 6. 29)
- '좋은 게 좋다' 더는 없다 ... 달라지는 공공기관 (중앙일보 6. 29)
- '중환자' 건설업계에 3조원 이상 수혈...효과는 '글세'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동아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6. 29)
- 수인선 전철 속도~오이도 개통됐다(조선일보, 인천일보 7. 2)
- "수인선 '논현동 달개공원' 시에서 추가지원"(경인일보 7. 2)
- 興 "F-X 사업·인천공항 현안, 다음 정권에 넘겨라"(조선일보 7. 2)
- 의정부 경전철 올 스톱...승객 1500명 20분 간헐(조선일보 7. 2)
- 공공기관 빛 5년세 2배로...부채율 200% 육박(동아일보 7. 2)
- 휴게소·지하철 매장, 퇴직자에 임대 특혜 없앤다(국민일보 7. 2)
- 철도시설공단, 보상시 잔여지 매수기준 개선(충청투데이 7. 2)
- 전철로 22분 ... 이웃동네 된 속도~오이도 (중앙일보 7. 3)
- 대구 화원~구지 연결 광역철도 추진 (경북일보 7. 3)
- '리조트사업 중심에 서는 스위치백' (조선일보 7. 3)
- 성남 KTX 환기구 공사 두달만에 재개 (경인신문, 경기일보 7. 3)
- 새누리, 인천공항 민영화·FX사업 재동 왜 · (국민일보 7. 3)
- 에디오피아 5000km 철도, 중국·터키 32억달러 수주 (매일경제 7. 3)
- 철도 양대기관 경영혁신 나서(중도일보 7. 4)
- 호남·수도권 고속철 2014년 개통 어렵다(서울신문 7. 4)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본격 추진(국민일보 7. 4)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토지 보상 착수(강원일보 7. 4)
- 전남~제주 해저터널 잇단 공약... 신공항 어떻게 되나(조선일보 7. 4)
- 경제자유구역·동서고속철·오색 로프웨이 진출이 좌초위기(강원도민일보 7. 4)
- 철도시설공단, 예산 65.7% 상반기 집행(파이낸셜,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7. 5)
- 대형 국책사업 '정면돌파' 시사(세계일보 7. 5)
- 춘천~속초 고속철도 불투명(조선일보 7. 5)
- 푸틴, 공항·철도 등 민영화 추진 '집권 1기와 정반대'(경향신문 7. 5)
- 철도공사 - 원·하도급사 상생 맞선, 동반성장협의회 출범 (충청투데이 7. 6)

경조사

- 녹색철도연구원 기술연구소 최원일부장 부친상  
- 발 인 : 2012년 7월 6일
- 시설장비사무소 궤도시설부 유성복과장 모친상  
- 발 인 : 2012년 7월 6일
- 기술본부 차량처 김우식처장 장녀혼  
- 일 시 : 2012년 7월 22일(일) 오후 5시  
- 장 소 : 서울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